

# 청렴도 중·하위권, 광주시·전남도 아직 멀었다

### 국민권익위 조사, 시교육청 '추락' 도교육청 '상승' 목표·무안 최상위... 여수·보성·화순·동구 최하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는 중위권을, 전남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시·군·구 평가에서는 목포시와 무안군이 전국 최상위권에, 여수시와 보성군, 화순군, 광주 동구 등은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청 평가에선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년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53개 공공기관을 놓고 민원인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201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8위에서 두 단계 내려앉은 10위에 머물렀으나,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7.72점)에서는 6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총인처리 시설 임찰비리 등의 최종 처분이 지난 1월 이뤄지면서 갑질 폭이 컸기 때문이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와 부패

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전남도의 종합청렴도는 6.87점으로 13위(4등급)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14위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7.16점)는 15위로 사실상 꼴찌였다.

전국 75개 시·군·구·자치단체 중에서 목포시가 종합청렴도 8.0점으로 2위(1등급)를 기록했다. 광양시(10위·2등급)와 순천시(13위·2등급)도 기록해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여수시는 68위에 머물렀다.

전국 83개 군·단위·기초단체 중에서는 무안군이 종합청렴도 8.07점으로 4위(1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함평군도 10위(2등급)를 기록했다.

반면 보성군과 화순군은 79위(5

등급)와 81위(5등급)로 사실상 최하위였다.

전국 69개 구·단위·기초단체 중에서 광주 광산구가 종합청렴도 28위(2등급)로 중간에 이름을 올려 치면치레를 했고, 북구 42위(3등급), 서구 48위(4등급), 남구 60위(4등급), 동구는 67위(5등급) 등 나머지 광주지역 기초단체는 하위권이었다.

지방공사 33개 중에서는 광주도 시설도공사가 종합청렴도 8.53점으로 2위(1등급)를 차지했으며, 광주 환경공단도 지방공단 27개 중 종합청렴도 8.42점으로 4위(2등급)를 기록하는 등 광주지역 공사·공단의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평가에서는 희비가 엇갈

렸다.

장학국 진보교육감이 부임하며 청렴을 기치로 내걸었던 광주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종합청렴도 순위가 12위에 머물렀고, 등급도 5등급 중 4등급이었다.

전년에 비해서도 1등급 낮아졌으며, 순위는 2단계나 떨어졌다.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등을 측정한 외부청렴도에서 전국 15위에 머무른 것이 치명타였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위에서 4단계나 뛰어오른 7위를 기록했다. 특히 외부청렴도는 울산에 이어 2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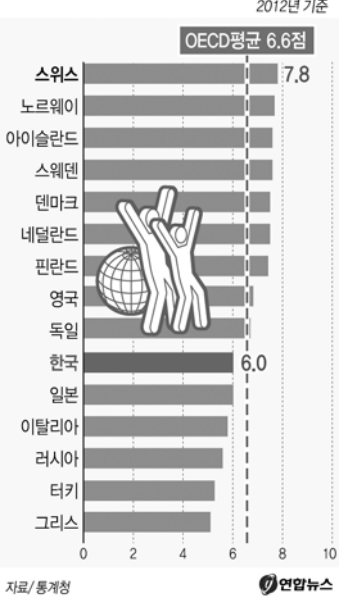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우울한 한국

### 삶 만족도 OECD 36개국 중 26위

### 10명 중 1명 최저임금 이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 50%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증가

### OECD 주요국 '삶의 만족도' 현황



작년을 기준으로 근로자 10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받는 중·고학생들은 늘고 한 달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는 음주자 비율도 남녀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범죄자의 강간, 절도, 폭력 비율은 내국인 평균을 웃돌 정도가 됐다.

특히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 50%에 육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우울한 한국사회의 자화상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한국인의 주관적인 삶 만족도는 OECD 36개국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통계개발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70만명 = 전체 임금 근로자 수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로 나눈 최저임금 미달율은 2009년 12.8%에서 2010년 11.5%, 2011년 10.8%, 2012년 9.6%로 감소세를 기록 중이지만 여전히 높았다. 2012년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1773만4000명 가운데 169만9000명이나 된다.

◇노인 1인가구 10년새 3배로...3명

중 1명 독거 = 노인가구(가구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노인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10.6%에서 34.3%로 급증했다. 노인 3명 중 1명은 홀로 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 11점 만점에 6점 = OECD 평균보다 낮아 =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1점 만점에 6.0점으로 OECD 평균인 6.6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드가 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한국과 같은 6.0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철도파업 '최후통첩' vs '상경집회'

철도노조 파업 11일째인 19일 코레일이 파업 중인 노조원에 최후통첩 성격의 복귀명령을 내렸으나 노조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이번 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최후통첩의 복귀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추가 복귀자는 62명으로 집계됐다. 파업 이후 업무 복구

는 모두 876명이다. 노조의 반발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20일 수서 발 KTX 운영 법인의 면허를 발부할 계획이다.

검·경은 철도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검찰은 서울과 순천 등 지역노조 간부급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경찰도 이날 순천 등 철도노조 지

역본부 사무실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노동계는 예정대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여는 등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노총 등과 함께 대규모 2차 상경집회를 열었다. 민노총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규

### 열차 운행률 83.1% 유지... 오늘 최대 분수령 정부, 수서 발 KTX 운영 법인 면허 발부 강행

탄하고 정부와 코레일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물류 차질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전체 열차 운행은 평소 대비 83.1%로 전날과 같은 가운데 KTX 88%, 새마을호 56%, 누리로를 포함한 무궁화호는 61.8%가 운행됐다.

한편, 새누리당 유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 "노조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 사건을 전제로 "과거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봉변을 당하면서도 광화문 광우병 촛불집회에 갔었는데, 오늘 철도노조 대집회에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 한번 가는 것도..."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실상 연임 논란 이사회, 이사장에 추천... 지역문화계 반발

노성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지역문화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화계는 올 초부터 재단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현 대표이사의 연임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빛고을시민문화관 3층 회의실에서 재단 이사 1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3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14년 예산안과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등 7개 심의·의결안건 등을 모두 원안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이날 오후 2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노성대 대표이사의 연임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향후 대표이사

선출과 관련해 공모제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 1기 이사진 12명을 포함한 31명의 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했다. 이사장은 이 가운데 12명을 2기 이사진으로 임명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 시작에 앞서 노성대 대표이사는 "직임 2명이 훗카이도 출장 중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단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계는 노 대표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북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사랑의 쌀 1004포대 기탁**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19일 북구청 광장에서 저소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사랑의 쌀 1004포대를 싣고 있다. 이번 나눔행사는 광주시 북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북구청에 기탁해 이뤄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청 스케이트장 내일 개장

광주시민의 겨울철 놀이터가 될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21일 개장한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광장에 마련된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개장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길이 60m, 너비 30m, 면적 1800㎡로, 최대 500명의 동시 입장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입장료와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시간당 1000원이다. 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50% 할인된다. 평일은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주

말(금~일요일)은 밤 9시 30분까지 연장한다.

스케이트장에는 물품보관소와 안내소, 의무실, 매점, 커피숍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간호사가 상시 근무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최대 1억원의 대인 배상 보험도 가입했다.

야외 스케이트장 얼음은 바닥에 고무호스 안으로 냉매가 흐르는 코일론을 1㎡당 32개씩 6만여 개를 설치하는 일명 '냉장고 원리'를 도입한 최첨단 공법으로, 24시간 내내 최상의 빙질을 유지하도록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방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초로 246번길 3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전통한복 맞춤형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형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행열 무례류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